

2022

제음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정푸름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내가 빛어지면 뭐가 달라질까?

목차

- 사명선언문
 - 타임엔지니어링 감상문
 - 언어빛음 감상문
 - 신앙에세이
 - 정의에세이
 - 평화에세이
 - 성결에세이
 - 성결서약서
 - 절제하는 삶의 원칙
 - 지역 연구 인터뷰
 - 3p창의활동 계획서
 - 문제 해결프로젝트
 - 빛음 2단계 소감문
 - 나는 배웠다
-

나는 이 빛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에서 잘못된 점을 고치고 내 의지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나는 빛음을 통해서 생각, 언어, 행동, 신앙적 믿음,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 이 변화를 평생 간직하고 지켜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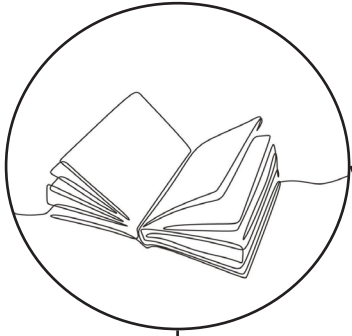


정푸름

2006.02.15

저는 사역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장녀로 자랐습니다. 최근 취미로는 산책, 사진편집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장래희망은 아이들에게 동화로 복음을 전해 주는 동화삽화가 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드리미학교를 알게되었는데 이곳에 오면서 취미도 생기고 도전정신도 생겼습니다. 운동, 찬양, 사진, 디자인, 바리스타등 여러 분야로 관심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싶다는 새로운 기도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뜻인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하자' 처럼 저의 행동과 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사명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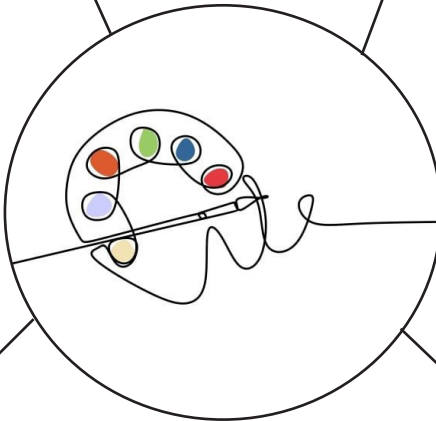
동화로 아이들에게 재미를 전하는 동화작가

아이들에게 내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동화를 통해 전달한다.
전 세계에 어린이들이 내 책을
통해 웃음을 찾을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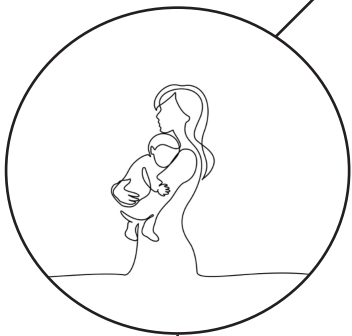
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쉼을 주는 동역자

바쁘게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음료 한 잔 건네면서
따뜻한 말을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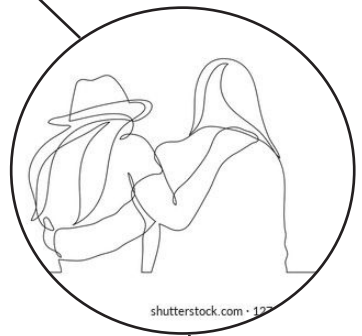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

내 사명은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나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정에 사랑을 주는 엄마

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되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
친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친구

사람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고,
속마음을 털어놓 수 있는
편한 친구가 된다.

Action Plan

동화로 아이들에게 재미를 전하는 동화작가

-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일기에 적어 둔다.
- 아이들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 어린이 관련 서적을 읽는다.

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쉼을 주는 동역자

- 이데알레를 하면서 카페 경험을 쌓는다.
- 바리스타 자격증을 조금씩 준비한다.
- 다른 사람들을 관찰한다.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

- 드림학교를 다니는 동안 하루에 드로잉 1개
- 하루에 3분 크로키 1페이지
- 심리를 나타내는 그림 감상하기
- 공감에 무엇이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찾아 정의내린다.

가정에 사랑을 주는 엄마

- 아이들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관련 유튜브를 본다.
- 올해 오은영박사님의 아동심리책 1권 읽기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친구

- 드림학교 안에서 친구와 선배, 후배에게 먼저 인사를 해준다.
- 내가 의지해도 될만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
-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

타임엔지니어링

-차원정리-

0차원 : 점으로 이루어진 관계.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1차원 : 선으로 이루어진 관계.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형성해 가는 사람.

2차원 : 면으로 이루어진 관계. 같은 또래, 세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람

3차원 : 공간으로 이루어진 관계. 자신의 레벨과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단계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음

4차원 : 공간+시간으로 이루어진 관계.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5차원 : 영적인차원.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 '영원' 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

내가 몇차원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난 내가 3차원 혹은 4차원 인것 같다. 왜냐하면 난 생각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SNS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평소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도 생각해 본다. 이사장님의 차원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내 장래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 했다는게 좀 느껴졌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장래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내 10년 정도 뒤의 모습. 내가 27살에는 뭘하고 있을지 점점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나는 동화 삽화가를 꿈꾸고 있다. 이 꿈의 목표를 드리미학교에서 세우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싶다. 또한 시간의 초월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 미래로 가서 나의 꿈을 그려보고 그 꿈에서 막히거나 부족한 점들을 찾아 현재로 가져와서 보충해야 한다. 마치 이사장님이 10년 후에 애터미를 미리 꿈꾸어 왔다는데 그 꿈을 현재로 가져와서 9년만에 이루었다는 이야기. 이처럼 나는 10년 정도 뒤에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싶다. 내가 만든 동화로 복음을 전해 그 책을 읽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흥미를 가지면 좋겠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매우 많다. 그 일들을 찾아보고 지금부터 하나둘씩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몇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압축 시킬 수 있다. 지금 나는 글쓰기와 성경의 이해, 편집 등이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일들에 시간의 압축성을 적용해봐야겠다. 하루에 드로잉 한개씩 일주일 하는걸 압축시켜 하루에 7개씩 하는 그런 목표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게 계속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나고 실력이 급증하며 시간이 남아 편해진다. 그 남은 시간에 다른 새로운 걸 배워 볼 수 있는거다. 이 압축해야 하는 시간은 사실 사건의 연속에 순서이다. 우리는 사건을 선택할 때 좋은 사건을 잘 선택해야 한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해왔고 시간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건이란 내 꿈을 위한 준비과정 이라 생각한다. 지금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나중에 나의 비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꿈에 대한 질문이 있다. 난 왜 삽화가가 왜 하고싶고, 그 도리가 무엇일까? 처음 시작은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였는데 점점 찾아보니 나와 적성도 맞고 내 취향이고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맘에 들었다. 아이들에게 내 머릿속에 있는 많은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의미있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누고 싶은 것이 성경이라면 그건 정말 나도 좋고 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다. 내 업의 목적은 유명과 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성경동화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란걸 잊으면 안된다.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말며 내가 하는것을 나누는게 업이다. 동화 삽화가의 도리라면 짧은 글과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영감과 창의성, 재미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건 평범한 삽화가의 도리이고 나 정푸름의 도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드림에서 배워온 것들을 잘 담아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아이디어와 많은 문제들이 수도없이 나오게 된다. 니 수도없이 복잡한것을 즐긴만큼 그 노력의 결과물이 나올것이다.

이사장님이 꿈을 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보라고 하셨다. 그냥 흔한 삽화가 말고 동화로 월드탑 혹은 베스트셀러, 아니면 안데르센 상 받기 등 정말 높은 목표들을 적어본다.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잘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정말 누가 물어봐도 막힘없이 술술나오게 깊게 파고 들어야 한다. 동화작가들도 많이 찾아보고 동화도 많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내 뒤에 너무나도 든든한 드림학교가 있어 좋다.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내 꿈을 더 깊게 팔 수 있고, 내 꿈을 응원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 의지가 된다. 나중에 드림학교를 나왔다는게 정말 대단한일이 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되면 좋겠다.

이사장님이 내 머리에 떠오르는게 있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 만으로 위로와 힘에 보탬이 되었다.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나의 꿈의 가능성을 믿어야겠다. 또 우리는 밀려서 낮은데 가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먼저 가는게 더 좋다고 하셨다. 낮은 곳에 갔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어진 것에 열심히 하고 기초부터 천천히 밟아 가는 것이다. 만약 내가 낮은 곳에 간다고 한다면 아마 작은 편집부터 시작할것 같다.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 왜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버려야 겠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이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건 줄 알았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조금 칭찬해 주고 싶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참 많다. 항상 내 죄를 돌아보며 느끼는 것이지만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하게 보였다. 이제 부터라도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버려야겠다. 그래서 빛음에 진심을 다 해야겠다 생각했다.

언어빛음 소감문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말이 청중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나보다는 너를 위한 언어. 또한 세계 언어 중 높임말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다. 나도 어릴 때부터 어른들,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사용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장은 서술어가 나중에 나온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항상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끊으면 말에 오해가 생기기 쉽다. 또한 말들이 감각적이고 섬세하며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단어들이 많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어려워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노랗다, 누렇다, 노란끼 있다 등이 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단어가 있어서 표현을 더 구체적이고 잘 나타낼 수 있다.

성경에는 죄 이전의 언어와 죄 이후의 언어가 있다. 이전에 언어는 조금 애칭을 통해 친밀함을 나타내 언어빛음 시간에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언어들이 어떤 뜻이 있었고, 얼마나 심각한 비속어였는지 알아보았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 내가 쓴거라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다. 또한 내가 한 비속어로 상처 받았을 타인들을 생각하면 미안하다. 아무리 장난으로 한 말들이라고는 하는 표현들이 많았다. 하나님이 아담이란 애칭으로 사람을 불러 친밀감을 높여 가깝게 다가오시고, 너는 나에게 이런 의미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신다. 성경구절에는 창세기 2장 23절, 2장 10절이 등이 있다. 이 말씀들 모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애정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의 말에 선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생활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바르지 못 한 말들이 나온다.

지만 뜻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다. 여자와 남자의 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욕들도 있었고 부모님과 가족을 모욕하는 욕도 많았다. 정말 회개하고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나는 이번 언어 빛음을 통해서 내 입에서 비속어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내 노력도 필요하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을 한다. 나는 보통 놀랐을 때 비속어가 나오는데 욕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찾아 봐야 겠다. 또 헐, 대박, 개 말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로도 충분히 표현 할 수 있으니까 고운말 쓰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성경에 언어 사용에 대한 말씀들이 (에베소서 4:29, 시편 141:3) 몇 개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언어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신앙에세이

드리미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사경회를 들어보았다. 첫번째가 창조 이야기 였는데 난 지금까지 살면서 창조론을 믿지 않아왔다. 그렇다고 진화론을 믿는 것도 아니었다. 근데 성경과 과학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진화론은 아닌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그래서 현재 창조론을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 계속 말씀을 접하다 보니 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 것 같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드신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고 그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난 주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지금은 내 마음 어딘가에 주님을 묵혀두었다. 내 마음엔 계속해서 새롭고 재미난 것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좁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고 싶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해 달라고.이걸 기도시간에 이야기 하는데 드리미에서 내가 주님에게 자발적으로 아픔을 털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기도 시간에 자거나 딴짓하는게 아닌 내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 기도 하고 나면 뭔가 후련했다. 마치 내 마음에 묵혀둔 고민과 죄들을 덜어내 주시는것 같다. 마치 청소해 주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청소해 주시니까 나도 숨기지 말고 차마 보여드릴 수 없던 것들도 열어 드러야 한다.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지난 나의 죄와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사라지길 바란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바램, 기대로 간절하게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나는 이 사랑에 감동하지도 못 할 망정 밀어내고 있었다. 마치 고멜처럼 말이다.

나는 죄인이다. 사경회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뉘우치고 있다. 저는 죄인이고 고멜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버리고 저 마음 구석에 박아놔도 주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신다. 강사님들과 목사님을 통해 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확신을 주고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주님앞에 뒤흔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어 저의 죄를 털어냈다. 털면 털수록 끝없이 나오는 죄에 나마저도 당황하곤 했다. 나에게 있는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면 빨리 만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고멜이고 예수님은 호세야. 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짜증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날 사랑한다고 하시고 다가와 주신다. 나는 그런 예수님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하고, 이 관계에 변화를 주기위해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다짐을 하고 다함예배를 하면 큐티의 말씀이 내 일상에 적용되면서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린다. 특히 고난주간에 두렵돈을 넣은 여인의 이야기가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것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놔야한다. 고난주간을 지내보면서 많은 의미와 감정을 알 수 있게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드는건 처음이었다. 또 십자가에 길에 오르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 되는고통을 예수님이 정말 무서워 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님도 무서워하는 것이라면 나도 무섭고 아플것 같다. 예수님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하면서 진짜 고난주간을 배운 것 같다. 이 전에는 새벽기도 가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고난주간의 알 수 없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감정 같은걸 느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세족식이다. 처음에는 그냥 발닦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와 말씀에 압도 당했다. 선생님들이 언니들 발을 닦아 주는데 뭔가 가슴이 울렁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내 발을 닦아주는 언니를 보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이런 감정이 흘러나왔을까 많은 울렁임이 나왔다. 세족식이 끝나고 언니, 친구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정말 많이 울었다. 특히 연수를 기도해주는데 정말 나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진짜 완전 폭포처럼 내려왔다. 이유는 나도 모르고 연수도 모른다. 또 이날 동그라미해서 인사하는걸 처음했는데 평소 인사하지 못했던 선배들이랑도 이야기 하고 기도해줄 수 있어 뜻깊었다. 언니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응원이 마음의 위로로 다가와 주어서 감동받았다. 나중에는 내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다. 고난주간에 이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부활의 소망인 십자가를 내가 피한 것 같다. 아마 내 죄가 너무 많고 차마 주님 앞에서는 꺼내기 부끄러워 피한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정의로운 하나님의 십자가 심판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빨리 회개해야 한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 질만큼이 되어야 한다. 또 난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운 처벌인줄 몰랐는데 목사님을 통해 그 고통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이 나라는 죄인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에 감동도 받고 죄책감도 들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죄의 무게가 느껴지는 기분이다. 여러 강의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지가 생겼다는건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주위에서 억지로 예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기도하고 찬양하니깐 난 예배가 이렇게 자유롭고 재미있는 건 줄 몰랐다. 설교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 이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는 것이라면 응답 받으면 좋겠다. 신앙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 어디에 위치해 있으실까를 나누었었다, 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내가 저 구석으로 보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제일 높은 곳에 모시고 싶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진 형상인데 왜 날 미워했을까 후회를 해봤다. 또 우리가 지혜로운 이유도 하나님을 닮아서 인데 그 지혜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신앙 에세이를 통해 최근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 확실히 드리미에 오기 전과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과거의 생각들은 버리고 여기서 부터 다시 내 신앙을 시작해봐야겠다.

정의에세이

{내 잘못과 주위 잘못들 돌아보기 }

--순서--

도둑질과 정의의 개념

1.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모습
2. 목격 사례
3. 내 다짐
4. 정의

희년과 예수님의 가르침

1. 희년이란
2. 다짐, 느낀점

정의롭지 않은 사회

1. 기부를 망설이는 이유
2. 방관 사례

-내 마음가짐과 소감-

도둑질과 정의의 개념

1.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둑질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도둑질의 정의는 남의 물건, 추상적인것 아이디어 등을 훔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도둑질 당한 사람은 이익이 없으며 도둑질 한 사람은 노력없이 뭔가 얻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로는 불펌, 도용 등이 있다. 이는 보통 온라인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 여기서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이다. 또 도용이란 남의 작품을 허가없이 몰래 쓰고 बे끼는 것이다. 도용은 표절과 달리 남의 작품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내 머릿속이 털리는 기분일 것 같다. 특히 나는 표절이 제일 짜증나는데 분명 내 작품을 따라한 것 같은데 일부만 따라하고 오리발을 내놓기 때문이다.

2. 또 내가 목격한 사례로는 일러스트 도용이 있었다. 새벽에 트위터에서 본 일러스트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니 올라와 있었다. 그래서 '어? 뭐지 이거 허락받고 올린건가' 하고 트위터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경고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 일러스트레이터분의 계정에서 도용을 한 것이다. 심지어 그분의 계정은 비공개였다. 그 작가님 말로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일러스트는 자기 그림이 맞고 작가님 허락없이 올라간 것이라고 다른 곳에서 자기 그림보면 신고해 달라고 올라와 있었다.

3. 이처럼 내 주위에서도 도둑질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나는 나라도 도둑질 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다.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저장하지 않고 다른곳에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얻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둑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의 양심을 믿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씨씨티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자기 물건은 잘 소지하고, 글, 그림에는 싸인, 표시 등을 해둔다. 이런 작은 실천으로 내 아이디어와 물건등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4. 다음은 정의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사회적으로 옳은 것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십계명 등을 잘 지키면 정의로와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한 법은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 다같이 지켜야 하는 하나의 룰이다.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며,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섬기고 베풀 줄 알고, 용서해주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말고 등등이 있다. 나는 드리미 학교의 학생으로서 5월에 해당되는 말씀은 열심히 지킬 것이다. 또 베풀어 줌이 몸에 베어 다른 누군가를 내 달란트와 의지로 도와주는 그런 정의를 행하고 싶다. 내 달란트로써 어린이집이나 노양원, 어린이 복지센터 같은 곳에 가서 페이스페인팅이나 벽화같은걸 그려주고싶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내 의지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를 위해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몸이 불편해 보이는 분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 준다. 또한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타락, 술, 담배를 멀리한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아가며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희년과 예수님의 가르침

1. 희년의 한자 뜻은 禧年 복 희, 해 년이다. 희년은 음력 7월 10일 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희년이란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거기 주민들을 위해 자유를 선포하고 자신의 분배 받은 땅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라고 한다. 이런 희년에는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이익을 바라지 않고 먹이고 재워주며, 일을 시키더라도 종으로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다음 희년에 돌아가며 그전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 만약 나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며 같이 살라고 하면 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르침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희년이란 제도는 자유를 위해 생긴것이다. 근데 희년은 마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와주신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죄인 즉 종들이고 예수님이 희년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2. 매번 반복되어지는 말 같지만 이런 일들은 꼭 희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지켰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 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도움이 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니깐 주위의 시선들 보다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

1. 내가 생각하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매우 많지만 그중에서 뽑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망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힘들고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걸 알면서 모르는척 하거나 도움주기를 망설여 한다. 그 이유들을 찬찬히 살펴봤다. 먼저 기부! 기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서 많이 해보았는데, 우리가 기부한 돈이 온전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점 복지센터나 기부단체활동에서 교통수단 비용 등으로 기부금이 쓰이는 일들이 있어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또 돈빼돌리기 같은 일이 있으면 헛고생하는 것 같아 더 하지 않게 된다. 같은게 있을까봐도 있을 것 같다. 이걸 좀 여러 생각들이 오가는데 '내가 왜?' 라는 의문으로 시작한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단체에서 도와줄텐데 내가 왜 도와야 하는거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 또 작은 부탁, 도움을 시작으로 무리한 부탁, 도움을 요청 할까봐 피하는 일도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 수록 거절하는게 힘들어 마음속으로 굉장히 여러모로 심기불편하다. 보통 이런건 금전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왕 도와주는거 크게 잘 도와줘야지 하는 책임감 같은게 생겨 그로 인해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왕 도움을 줄 거면 제대로 줘야지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자신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이유로는 분명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방관하고, 무시하고, 발만 동동구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어디서나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2. 한 사례로 해외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당했는데 그 장소에는 있던 사람들은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하는 생각이 피해자를 죽인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선뜻 말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고라도 해주었다면 그 상황이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공존한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니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정말

가까이에 모두가 아는 사례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 방관이다. 괴롭힘이 얼마나 힘든건지 알면서도 막상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무시한다. 말렸다가 나도 괴롭힘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를 도와주는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치는 글

이렇게 내가 겪어본 일들과 사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쓰면서 도둑질과 정의, 희년,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도둑질에 대해서 쓰면서 내가 이 전에 저장하거나 봐왔던 불평, 도용, 표절 그림, 영상들이 생각났다. 전에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게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었다.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하나라도 정의롭게 행동해야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주위에서 많이 들어 왔지만 실제로 잘 실천되지 않는 일이었다. 근데 사례들을 찾아보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어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 보려 한다. 또한 그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쓰이면 더 좋겠다.

평화에세이

제목: 평화를 대하는 내 행동

평화는 어렵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폭력은 평화를 부수는 것 중 하나이다. 폭력은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매일 폭력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평화롭지 못 하다. 내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평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날 억누르고, 채찍질하고, 갈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사랑이란 주제를 다루기 어려운 마음이다. 사랑을 하면 평화가 찾아올까 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라고 하고싶다. 사랑이란 것을 가면으로 삼아 생기는 범죄들 때문이다. 이 범죄들 때문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 관한 두려움도 생긴다. 그렇지만 드리미학교에서 사랑이 없다면 난 괴로워서 학교다니기 싫었을 것 같다. 난 이 학교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받고있다. 과거에 미쳐 다 채워지지 못 한 그 빈 곳을 이곳에서 메우고 있다. 귀엽다, 예쁘다, 애기같다. 모두 익숙치 못 한 칭찬이고 말들이었다. 난 이 말들이 사랑이 없으면 나오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랑을 받고있기에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 난 내가 받고, 배운 사랑을 5기가 들어오면 아낌없이 나눠 줄 생각이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관계는 지옥이다. 매일 불평하고, 서로의 단점만 보고, 매일 다투었다. 괜히 내 사랑을 주고 싶지도 않는 친구들이 간혹 있다. 일반 학교였다면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드리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서 다르다. 계속 그 친구가 왜 싫은지 사랑하지 못 하겠는지 고민한다. 현재 내 경험상 한번 정이 뚝 떨어진 사람은 회복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상담도 해보고 혼자 고민도 하며 그 친구에 대한 마음 정리도 했지만 난 어려웠다. 앞으로도 드리미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평화롭지 못 한 일들이 일어날것 같아 조금 두렵다. 두렵지만 드리미라는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겠다. 난 교칙과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고 싶다. 내가 나서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을 잡아주고 잘 어루만져 준다면 조금은 평화롭고 보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것같다. 드리미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드리미 밖 공동체와 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앞에서 말한 것처럼 폭력은 평화를 사라지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다. 폭력도 언어, 신체적, 정신적, 사이버 등등 다양하다. 나도 당해보거나 했었던 폭력들도 몇가지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작위를 이용해서 하는 폭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살짝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언니라는 이유로 누나라는 이유로 동생들에게 시켰던 심부름, 억누르는 압박주기 등 조금 미안했다. 난 이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누나로써 해주는 말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동생들이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았거나 하면 엄연히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폭력 중 익명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다. 원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이버 공간이 익명이라 보장되는 공간들이 늘면서 악플을 달고, 욕을 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해 진다고 한다. 온라인 공간은 사람을 직접 보지 않는 비대면이다 보니 상대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 후 죄책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유튜브 댓글, 에스크 등 SNS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을 직접당하면 얼마

나 괴로울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내 주위에 이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지 이런 일로 평화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겠다.

지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인간에 대한 폭력은 인간성에 대한 폭력, 즉 인권에 대한 폭력이다. 인권에 대한 폭력은 인격에 대한 폭력이며, 그것은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폭력이다. 인격에 대한 폭력은 인격의 유일무이한 가치의 원천인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폭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내 행동이 하나님을 대하는 행동임을 느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폭력에 연약한 존재임을 되새김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고 싶고 살 것이다.

성결 에세이

< 성결의 정의와 중요성, 필요성 >

< 글의 순서 >

- 성결이란?
- 내 삶에 성결
- 내 인생의 주인, 삶의 기준
- 드리미에 성결
- 사회적 성결
- 에세이 소감

- 글을 시작하기 앞서 성결에 대해 배우기 전 내가 생각한 성결이란 깨끗한 사람, 몸이 더럽지 않은 것, 음란하지 못한 것 이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조금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의 정의를 살펴보면 거룩하고 성결한 것, 세상적인 것에서 즉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서 말하는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이라 표현 한다. 비슷하다 느낄 수 있지만 느낌이 다른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고, 죄와 분리되라 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솔직히 너무 뻘한 질문이다. 우리가 죄와 분리 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기 어려워하며 나 또한 너무 어렵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앞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은 성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는 성결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성경말씀에 쓰여있다. 이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성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결하라 요구하시는 것이다.

- 우선 나는 성결하지 못 한다. 나의 삶에서 성결이 필요한 부분은 내 몸, 미디어 등이 있다.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다. 부정맥도 생기고, 살도 찌고 있다. 내 몸이 성결해지려면 운동을 해야하고, 간식을 끊어야 한다. 어렵겠지만 성결해 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내 몸이 건강을 되찾고, 살도 빠질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유튜브, 그림 등이 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너무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들과 인식들이 나를 성결하지 못 하게 만든다. 내가 자료를 위해 보는 사진들, SNS들 또한 성결하고 할 수 없다. 또 하나님 이외에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그곳에 전념하고, 돈을 쓰는 모습들은 성결하지 못 한 것 같다. 또한 노래를 들을 때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요즘 노래들을 듣다보면 욕이나, 성적으로 타락된 가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때문에 노래를 듣고,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 하나님이라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아직은 그 정도의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생각은 있다. 그 방법을 찾고자 드리미 학교에 온 것이다. 앞으로 드리미 학교를 다니면서 내 인생에 주인이 어떤 계기로 방법으로 바뀌게 될지 궁금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삶의 기준도 바뀔 것이다. 본래 내 삶의 기준은 부모님, 규칙, 법, 내 개인적인 기준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삶의 기준과 법, 규칙들은 성경에 기록돼 있다. 난 이것들을 참고해서 내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

- 드리미학교에서 성결이 필요한 부분은 친구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편한 친구끼리, 마음 통하는 친구끼리만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 모습인데 드리미는 한 공동체이니 친해지려는 노력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모든 친구와 친한것은 아니다. 선택 수업이나 취미가 전혀 겹치지 않는 친구는 하루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 때도 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고, 날 좋아하지 않아 보이는 친구들도 있다. 이런 친구들과는 사실 친해지기가 좀 어렵다. 난 시간이 해결해 줄것이라 믿고 싶지만 다른 친구들은 좀 조급해 보이는게 없지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나는 동시를 하거나 같은 기수끼리 시간을 보낼 때 평소 말 걸어보지 않은 친구와 이야기도 나누고 한다. 최근에는 왓자지껄하게 모여 앉는 것보다 혼자 혹은 1~2명만 앉아 있는 곳에서 밥먹기를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조용한 친구들과 모이게 되는 것 같다. 이걸 좋은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요즘은 사회적으로 성결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너무 많다. 난 그중에서 비속어 문제를 뽑아 보았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비속어의 뜻도 모르고 따라 쓰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비속어를 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심지어 비속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나중에는 유치원생들도 욕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뒤따라왔다. 우리 집에는 3살 되는 애기가 있다. 때문에 집에서 하는 모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들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3세같은 유아기는 자아가 발달하고, 정서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 나도 친구들과 놀때, 아무도 없을 때 나도 모르게 비속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채팅에서의 대화가 더 심각하다. 채팅에서 사용하는 비속어들은 정말 위화감 없이 나온다. 지난번에 중학교 친구들의 채팅을 보았는데 비속어가 정말 많이 있어 그 심각성을 느꼈다. 거의 모든 말에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도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정말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수업과 활동들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성결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 진행했던 이 시대에 성결이 필요한 이유 발표가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원래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자살이 성결을 통해 보니 더 심각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결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게 된다. 아동학대, 성범죄, 외모지상주의 등 잘못된 믿음과 인식에 의한 사례들도 많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결 수업이 끝나도 계속 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또 해결책을 만들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성

결이 필요한 사례를 정말 가까이서도 찾을 수 있다. 드리미라는 공동체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는 성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고 싶다. 또한 에세이에는 미쳐 쓰지 못했지만 내 신앙에 대해서 성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고쳐나가고 싶다.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설교 시간에 잠드는 모습들부터 고쳐나가고 싶다. 성결이란 것이 연애, 순결 같은 것인 줄만 알았던 나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 정리하게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리한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와 멀어져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다. 학교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번에 배운 이 성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좋을 것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2022 드리미학교 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
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
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
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
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
하여 상호 간의
대화과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
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정푸름

절제하는 삶의 원칙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고린도전서 9장25절 -새번역) -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또한 헛된 일이다.
일시적인 것에만 애착을 갖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지 않는것도 헛되도다.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종종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쉽게 분노한다.

- 그리스도를 본받아(토마스 아켄피스) -

내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세속적인 노래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
불필요한 밥, 몸에 좋지 않은 간식 먹기
유튜브 보기, 핀터레스트 탐방
성향이 맞지 않는 친구를 피하는 것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말로 짜증을 표현하기 귀찮아서 주먹 시늉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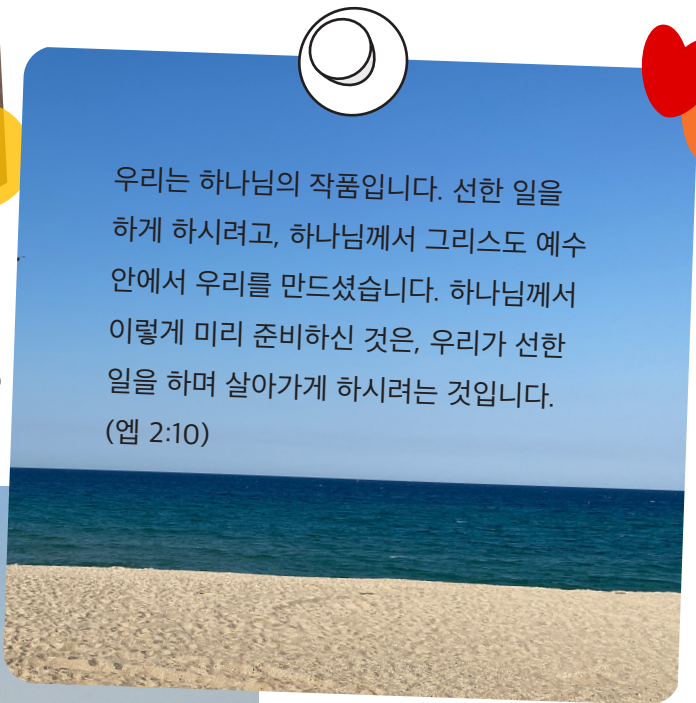
언어빚음
절제되어 있는 미디어 규칙
몸 빚음 중에서 운동하기
학생회 주관 MT
아침마다 하는 달리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절제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된다.
주위 사람들에게 절제하라는 주의를 받으면 절제하도록 노력한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에만 감사하며 선을 넘기지 않게 한다.
절제를 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본다.

국토순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세계는 사랑의 대상이다. 드리미학교의 핵심가치이기도 한 이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나와 동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국토순례를 통해 몸으로 배우고 실천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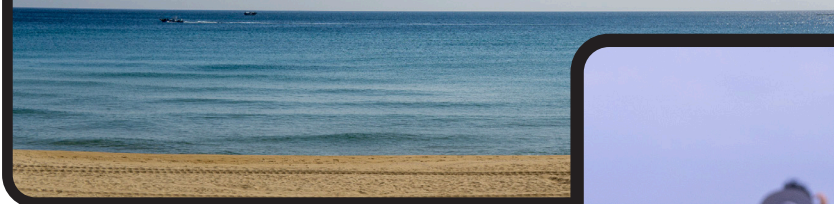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2:10)



Vlog QR



창조세계를 향한 청지기적 사랑
창조세계를 몸으로 느끼고 향유하며 자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자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



나에 대한 사랑
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의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식한다.



동료들을 향한 공동체적 사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료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진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과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을 알고 공동체의 가치를 마음에 새긴다.



지역 연구 인터뷰

대상 : 김영묵 작가님

날짜 : 5/31일 오후 5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종이책 말고 e북에 대한 작가님의 인식이 궁금해요.

자연스럽게 e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책을 찾아보기도 하겠지만 e북이 접하기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다. 작가님도 계속 수작업만 고집했었는데 시대에 뒤 떨어지게 된다. 발주도 잘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된다.

의뢰받은 원고를 보고 추가 자료를 찾으실 때 작가님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시나요?

요즘에는 검색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빌려봤다. 하나하나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그대로 책에 반영한 적도 있다. 가야하면 장소까지 가서 사진 찍고, 보고, 그렇게 작업을 한다. 일단 인터넷으로 구도 같은 것을 찾아보고 가봐야할 필요를 느끼면 가본다.

개인적으로 동화삽화에 꼭 넣고자 하는 (들어갔으면 하는) 가치가 있을까요?

참 그림책이랑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비록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지 않고, 웹툰도 보고..약간 어렸을 때에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힘들 때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림책을 꺼내보면 어릴 때에 추억이라던지 아빠가 읽어주었던 추억이라던지 이렇게 힘이 되어서 미래를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채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작가님 만에 이
부분은 꼭 살리시는 그림의 특징, 중요시 하는 부분
이 있으신가요?

근데 어느순간 수채화의 번짐이라던지 물을 머금고
있는 맑은 느낌이 되게 좋아서 ..컴퓨터를 하기 전까
지는 계속 수채화만 했어요. ㅎㅎ 수채화는 약간 투
명하고 맑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맛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

캐릭터를 디자인하거나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
는 특징, 장치가 있으신가요?

많이 왜곡 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동작들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스케치를 할 때 캐릭터
를 잡을 때. 그래서 동작이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
으려면 드로잉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
고 있어요. 그릴 때는 모르는데 막상 책으로 나와보
면 볼 때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
각하고 있어요.

배워두고 알아두면 동화를 그리고 쓸 때 도움이 될만한
게 있을까요?

동화책을 많이 보면 그 흐름 같은게 있어요. 기승전
결이라던지 약간 그런 흐름같은게 있거든요? 그림쪽
으로는 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서 그냥 자기의 개성
을 잘 살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수채화를
많이 써서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이런 걸 출판사에서
보고 발주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다른 작가들
은 작가들 만에 특징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누구그
림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개성, 기
법,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성경 삽화(종교에 관한 삽화)를 그리셨을 때 소감이
있을까요? (먼저 물어보기

교회에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들이 되게 자연스
럽게 저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왔을 때
아 나도 이제 드디어 성경 책에 대한 그림을 그리
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을 그릴 때
재밌게 그렸던 것 같아요. 낯설지가 않으니까 성
경 이야기는. 거부감이 없이 원고를 받고 그렸던
것 같아요.

동화 삽화를 하시면서 뿌듯하거나 이 직업을
선택하기 잘 했다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제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그림책이 나왔을 때 정말 뿌듯하고, 내가 이 직업을 정말 잘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첫 그림책 이었는데 우리 딸아이들과의 이야기가 있고, 주인공도 우리 딸들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내가 이 직업을 하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소감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정말 좋아하던 삽화가님과 인터뷰를 할 생각에 들뜨면서도 떨렸다. 지금 보니 질문도 삽화가라는 직업보다는 작가님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너무 들뜬 것만 빼면 완벽했다. 약간 작가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삽화가로서의 답은 많이 받지는 못했다. 그래도 난 만족한다. 특히 그림책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가치의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 어릴 때 본 그림책이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커서 내가 힘들 때, 추억을 회상할 때 도움을 주고 마음에 위안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어릴 때 재미있게 봤던 책들은 가끔 생각나 찾아 보기도 한다. 그만큼 추억도 많고, 지금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내가 만든 동화책이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란다. 또 캐릭터 질문에서 빠를 맞았다. 이렇게 잘 그리시는 분도 드로잉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나는 드로잉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당연히 잘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예전에 즐겁게 그림을 그렸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생각했다. 난 노아나 스테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그림체가 작가님만의 특징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비율이나 동작을 중요시 생각하고 계신다 해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성경동화를 그릴 때 드디어 내가 주님에게 쓰임 받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본받고 싶다.

3P창의활동 계획서

<모세와 성경동화줄>

이 활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여정에 중요 스토리를 그려보고 묵상해 보는 활동이다. 광야여정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려보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묵상한다.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생각해본다. 정리한 이야기를 어린이동화에 담아낸다. 어린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여줌으로 아이들의 가치 발달과 흥미도를 높여준다. 0~3세때 성격과 인성 , 자아,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때 까지 성경을 많이 접하게 해주면 커서도 성경에 대한 친밀감과 흥미가 생길 것 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동화를 통해 성경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준다.

의미있는 청중

0~3세 또는 어린 아이들, 모든 연령

자료 & 재료

성경책(새번역,어린이 성경)

종이, 연필, 지우개, 아이패드, 펜, 색연필, 물감, 붓, 마카, 찰필, 딱지우개, 마스킹테이프

어린이 성경동화(참고)

성경이야기(두란노), 출애굽기13~16

어린이 도서 2~3권

play

성경에서 아이디어 찾기

성경이야기(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이야기)를 읽는다. 이 이야기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리해 본다. 0~3세 아이들에게는 어떤식으로 표현을 보여줄지 고민한다. (어린이 동화책 참고)

performance

1.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의 기본적인 드로잉을 배우기 위해서 인물의 표정과 포즈를 공부한다.
-그릴 인물에 대해서 분석한다. 어떤 느낌으로 그려야 보기 좋을지 고른다. 캐릭터를 만들고 실제 그 인물과 비교해 본다. 다른사람들의 캐릭터를 보면서 분석도 해보고 피드백도 준다.

2.스토리보드 구성

이야기의 순서를 정리한다. 어떤 글에 그림을 어케 그릴지 구상한다.

3.내용 구성

읽은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하기쉽게 바꿔서 정리해 적는다.
책 뒤에 자신이 느낀 이야기의 가치와 의미를 정리해 둔다.
이 이야기에 있는 가치와 의미, 스토리를 잘 담아 구성한다.

Practice

1.동화책 기부

어린이집 , 복지센터, 보육원 , 도서관 등에 책을 기부한다.

2.피드백 및 성찰

독자들의 반응과 후기를 듣고 부족한 점을 배운다.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할때 참고한다.

문제 해결 프로젝트 계획서

팀원: 김민성, 박예슬, 전지수, 정푸름

1. 주제

약속시간에 대한 인식개선

2. 문제 개요

아침운동, 수업시간 시작, 기숙사 퇴실시간, 팀 미팅, 버스 출발시간, 기숙사 입실시간, 청소시간 등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시간 딜레이가 생긴다.

3. 의미 있는 청중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시간의 중요성을 잊은 사람, 선생님들

4.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

(목표)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시간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1분, 2분이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시간임을 사람들의 머릿 속에 각인 시켜 조금이라도 시간 딜레이를 줄이는 것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에센바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소포클레스-

5. 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 설문지 돌리기
 - 시간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 어떤 시간 약속을 가장 못 지키고 있는지? (아침운동, 예배, 모임, 과제, 기숙사 입실/퇴실)
 - 상대가 시간을 안지키는 것을 본 적 있는지 (예, 아니오)
 - 약속시간을 안지켰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 당신이 생각하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시간 약속을 늦는 이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 어셈블리
- 1번째 어셈블리 : 설문지 공지하기, 응답 받기
- 2번째 어셈블리 : 실제 사례 / 설문지 정리& 발표 ->
- = 시간의 딜레이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6. 문제 해결 방법 정리

- 1번째 어셈블리 때 설문지를 돌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구체화하기
- 받은 설문지를 정리 후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문제의 심각성, 현 상황 알려주기
-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과, 시간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익을 정리하여 시간의 중요성과, 개선방향을 설명해주기
- 시간과 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시간에 대한 문제점 인식 변화시키기
- 공지나 중요한 일정 전 미리 공지해주면서 시간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 이후 문제해결 전과 후 비교하며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기(어셈블리)

7. 액션 플랜

- 1번째 어셈블리 때 설문지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 알아보기
 - 받은 설문지를 정리(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하여 통계 내기)
 -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와 같은 것(ppt, 카드뉴스 등)을 만든다.
- (학생들에게 시간의 중요성,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자세히 알려주기)

빛음 2단계 소감문

빛음 기간 동안 나는 여러 활동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고, 게으른 사람이었다. 그림으로 나를 알기 수업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반면 나는 내 앞에 있는 친구를 그렸다. 즉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것이다. 그 안에 것 더 깊이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 있는 모습으로만 상대를 바라본다. 이런 내 시선과 생각 때문에 친구들의 행동만을 보고 그 친구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몇 개 있었다. 나는 사람의 여러 모습을 봐야 한다. 깊은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물론 나도 겉으로는 밝고 착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시커먼 죄로 차 있다. 그래서 난 계속 빛음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칭찬 사전을 할 때 난 받고 싶은 칭찬이 다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착하다, 배려심이 넘친다, 예의 바른다. 내가 받은 칭찬들은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받는 칭찬들이었다. 내가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빈말, 아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라는 생각이다.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나에게 귀엽다고 해주는 말들도 어쩌면 아부라고 생각한다. 좋은 칭찬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칭찬으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서연이 언니가 와서 함께 건강한 자아상 수업을 했었다. 그 테스트 결과 난 2위다 비난 경향성이었다. 비난 경향성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모두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이라는 신념이다. 사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다. 한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거리를 두고, 단점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저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고치고 싶어 상담도 받아보았다. 내 노력만큼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좋겠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많지만 나는 TMTQ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 TNTQ를 하면서 내가 돕고자 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 확고해졌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린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느꼈다. 그래서 미술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생각해 봤다. 사람의 타락과 예수님의 구원까지를 간추려 담은 일러스트 혹은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 어릴 때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봤던 그런 작은 책자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이걸 만드는 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저 창의활동이라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것으로 제작하고 싶다. 사명 선언문에도 넣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이란 게 무엇일지 생각하고 여러 방안을 시도해 보려는 중이다.

나는 배웠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드리미 일상에 모든 부분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탕이 된다는 것을
또 난 더없이 부족하며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드리미학교에 면접을 보러 온 순간부터 주님이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에게 신앙과 믿음에 대한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심을

나는 배웠다.
함께 성경을 읽고, 신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일인지
드리미라는 신앙공동체가 있었기에 지금에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
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냥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 한다

(시편23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